

국통73-1-197

北韓 및 東歐諸國間의 關係와 北韓의 孤立化 方案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연구책임자 : 박 동 희

연구위원 : 김종건 양수산 제희열

目 次

第1章	序 論	3
第2章	北韓의 對外政策과 情勢判斷	5
第3章	北韓의 對蘇關係	18
第4章	北韓의 對東歐關係	27
第5章	北韓의 東歐關係와 北韓의 脆弱點	32
第6章	韓國安保를 위한 對蘇戰略과 北韓孤立化 方案	44

第 1 章 序 論

韓民族의 國民生活의 傳統을 全面的으로 無視抹殺했고 그들의 國家運營에의 參與를 余地없이 排除했던 日本帝國主義 殖民地 支配는 그것을 終結시킨 第二次 世界大戰의 結果 韓民族의 自主獨立의 念願을 無視한채 美蘇兩國의 軍事力에 依한 國土의 分斷·占領·軍政實施로 交替되었다. 兩強大國의 勢力圈 維持 或은 擴張의 行爲를 或은 故意的으로 或은 結果的으로 韓民族의 自主獨立의 念願을 挫折시키고 우리 國土의 分斷 狀態를 더욱 굳혀버리는 方向으로 치닫기만 했으니 마침내 이 疆土의 南北에 形成된 두 社會體制는 彼此 容納될 수 없는 異質的인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것은 民族的 分裂이 相互否定하는 外部勢力에 依存하여 南과 北에서 各己 政治權刀을 強化한 結果로 생긴 것이 아니라 北을 強占한 外勢가 民族的 念願을 否定抹殺하고 強壓手段으로 扶權한 政治集團이 民族의 宿願과 利益을 背叛하고, 民族의 傳統과 單一性의 破壞, 南에 對한 不斷한 侵略行爲를 繼續한 結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狀態에 이르는 過程은 全世界의 範圍에 있어서의 兩極體制의 形成과 그 定着化의 過程을 反映하는 것이기도 했다. 四十年代末 五十年代初에 있어서의 美國의 防衛線 決定에 對한 애매한 態度는 蘇聯의 勢力圈·擴張·野慾에 便乘한 北韓·共產集團의 南侵을 行動化시켰으며 이로 因하여 韓民族의 對共產勢力 不信은 決定的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따라서 北韓 政權을 支援한 共產圈 各國은 大韓民國에 依해 敵對勢力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며 共產·各國 또한 北韓과의 既存關係로 하여 國際關係에 있어 大韓民國을 外面해 왔던 것이다.

第2章 北韓의 對外政策 및 情勢判斷

國際共產主義運動은 그 理論的 虛構性으로 因한 「이데올로기」의 變質과 複敎中心主義의 國際的 政治風潮로 말미암아 일어난 國際關係의 變化 때문에 深刻한 分裂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標榜하던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가 歷史적으로 가장 必要했던 時機에 여지없이 붕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마르크스·레닌」主義와 國際共產主義의 理論은 보편적으로 各民族의 独自の 利益앞에서는 너무나 無力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當然한 歸結로 나타난 것이 北韓의 “自主路線”인데 이것은 國內적으로는 求心力을 確保하기 위한 現實的 要求에 應하는 手段이었고, 國際적으로는 “自主路線”이란 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實 自主的 路線을 追求하려는 全世界의 各 共產主義國家의 共通된 움직임의 하나이었다. 弱小 共產諸國이 自主路線을 표방한 것은 歷史的 發展過程의 必然的 產物이겠으나 北韓과 같이 中·蘇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集團으로서는 보다 特異한 自主路線의 展開가 困難했다고 생각된다.

北韓이 中·蘇에 對한 양다리 政策에서 오늘의 自主路線을 건기까지의 基本이 되는 對共產圈 政策을 살펴보면 北韓의 對共產圈 外交原則은 相互 平等 互惠를 表明하고 있으나 항상 「소련」이나 中共과 같은 大國에 종속된 位置를 벗어나지 못했다. 解放後부터 6.25 動亂을 거쳐 休戰直後까지는 對蘇一辺倒政策이었으며

62년 12월 勞動党中央委員會 決定은 北韓의 自主路線의 出發點으로 重要な 意味를 지닌다. 즉 自力更生이 社會主義建設을 促進하는 途徑이라고 規定하였다.

1952년 2월 越南戰의 激化로 말미암아 社會主義 진영은 分裂과 中共의 敎條主義에 대한 不滿을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코시킨" 新指導部の 出現으로 화회의 可能性을 보이더니 1965년 「코시킨」 「소련」首相의 平壤訪問을 계기로 對蘇關係는 改善되기 始作했다. 이로써 북한과 中共과의 蜜月時代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對中共 비난은 1966년 7월 23일 勞動新聞의 "黨一「인터네셔널」時期의 機會主義"와 동년 9월 15일 同紙의 論文 "프로쨌끼"에서 명백히 指摘되었다. 1966년 10월 5일 第五次 全党大會에 대신하여 開催된 黨代表者會議는 自主路線을 淸중적으로 確立할 會議였다. 金日成은 同會議에서 "國際共產主義 運動에 있어서 左(敎條主義) 右(현대 修正主義) 機會主義 대국주의가 國際的共同行動 통일전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指敵하면서 自主路線의 正當性을 강조 "北韓黨의 모든 成果는 自主路線에 結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政治的 自主를 지향하게 된 움직임은 한마디로 國際關係의 勢力均衡에 있어서 多元化의 現象이 나타났고 그 余波로서 共產진영에서도 現實的인 國際關係가 黨이나 「이레올로지」의 問題보다 더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 데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現實的인 國家關係는 政治以外에도 貿易 通商 經濟 등에 의해서 支配되며 科學技術의 影響을 받기도 한다. 核武器의 대량개발은

中共政策으로 부터 親蘇政策에로의 轉換을 合理化하고자 한데 나타났지만 文化革命에 들어선 中共과 뚜렷한 理由없이 疎遠하게 된 北韓의 政策轉換은 對蘇經濟 및 軍事的 爽利追求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要因들의 複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平等을 내걸면서도 反美鬭爭의무를 正當하게 主張할 수 있는 充分한 여건이 마련되었고. 둘째, 65년 이후 中·蘇의 「아시아」 「아프리카」地域에 對한 外交的 後退와 民族解放運動의 國聯國家로 부터 疎遠해지지 않을 것으로 展望있을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側面과 統一戰略의 政治的側面 및 經濟的爽利를 동시에 감안한 政策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966년 親蘇政策의 採擇으로 점차로 惡化되어온 北韓과 中共關係는 69년 후반 中共의 文化革命의 수습과 함께 關係改善을 始作하여 70년 4월 周恩來의 平壤방문으로 正常關係를 回復하는데 成功했다. 이리하여 이에 蘇聯과 71~75년간 經濟技術協定이 체결된 (70.9.15) 환경에서 또 다시 中共과 經濟援助 및 71~76년간 長期通商協定을 맺어 (1970. 10. 17) 兩面外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北韓의 對蘇關係는 「이데올로기」와 國家關係는 政策的으로 조정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는데 반해 對中共關係는 「이데올로기」에 더 치중하면서 韓·美·日協力體制에 대처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 立場으로 볼때 北韓의 對中·蘇態度는 앞으로 이들의 對日 및 西歐 亞細亞의 어느쪽을

보아 國際政治의 성격과 統一戰略의 측면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 같다.

情勢判斷

第二次 世界大戰 後에 形成된 國際關係 即 美國과 蘇聯을 두 主軸으로한 兩極狀態의 漸次的 變化는 國際關係에 對한 認識에 있어 많은 變更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國際關係에 있어서 同盟關係가 매우 硬直한 것에서 相當히 柔軟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同盟關係가 當事國들의 位置와 方向을 決定하는 重要한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事實冷戰 時代에는 同盟關係는 硬直한 것이었고 따라서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協助와 對立은 그것을 固定的으로 생각해도 크게 支障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冷戰의 結果와 더불어 國際關係는 自體의 本然의 姿勢를 明確히 나타내게 되었다. 즉 國家間의 關係는 강약의 差는 있을지언정 언제나 協助와 對立의 混合體이며 完全한 友好關係도 完全한 敵對關係로 共히 거의 없다는 事實이다.

美國과 蘇聯의 單極的 兩極性이 엄연히 存在하는 現時點에서 어느 한쪽과 同盟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兩大勢力의 어느 한쪽에 接近해 있거나 地理적으로 雙方의 前哨의 位置에 있는 國家들로서는 거의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同盟關係도 自國의 國利를 爲해 生産적으로 利用되어야 하는 것이며 決코 前近代의 名分論이나 硬化된 理念論에 얽매어 自國의 不利를 招來하는 愚를 犯하는 原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超強大國間의 緊張緩和의 努力이 그들의 影響下에 있을

超強大國들에게는 그들 自体의 더욱 重要한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數年間에 軍備 特히 大陸間 彈導彈 保有量에 있어 美國의 蘇聯에 對한 圧倒的 優勢가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變했고 大陸間 彈導彈 遊擊 彈導彈 電波 探知器等 戰略 均衡을 構成하는 各部門에서 이룩된 飛躍的인 技術的 革新等의 事實이다. 그러나 새로운 技術은 舊技術보다 훨씬 強力하기 때문에 武器에 있어서의 技術 革新은 恒常 軍備 擴張 競争을 惹起시킬 危險性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 현재의 國際關係가 分明히 兩極體制로 부터 多極構造에로의 破格的 轉換期에 있다는 事實이다. 如何한 轉換期에 있어서나 政世의 激動은 不可避한 것이며 새로운 構造(秩序)의 定着과 더불어 그것이 減少되어 간다는 것이 歷史의 教訓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重要한 것은 그 轉換期의 到來가 美國과 中共이 豫想外의 일에 相當 期間 沒頭함으로써 時間的으로 遲延되었으며 따라서 더욱 甚한 動搖를 隨伴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즉 1960 年代 後半에 美國은 國際政治의 中心的 問題도 아닌 越南戰爭에 介入하여 많은 때에는 50 萬을 넘는 兵力과 年間 3 百億 弗에 가까운 資金을 投入하므로써 國力을 浪費했으며 그 結果 國際政治의 더욱 重要한 問題를 等閑히 했던 것이다. 그것은 美·蘇의 冷戰이 끝난 뒤에 狀況을 反映했던 것으로 當時의 美國 政策決定者에게는 主로 中共의 勢力 擴張에 對抗하기 위한 必要한 措置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越南이 그토록 努力해야 할 重要한 問題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에 明白하다. 마찬가지로 中共 또한 1966 년부터 所謂 文化革命에 突入하여 國內情勢

서도 努力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極東에서는 日本의 經濟力이 顯著히 크게 되었다. 즉 中共과 日本의 國民總生産의 對比와 1957년에 100 : 55 였던 것이 1968년에 1:2로 逆轉된 것이다. 中共은 이 事實을 深刻히 憂慮하게 되었으며 또 文化的 社會的으로 異質的인 日本經濟의 急激한 發展을 美國經濟가 指導하는 國際經濟에서 더욱 多元的인 國際經濟으로의 移行에 새로운 難問題들 附加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본 國際關係의 諸變化는 大韓民國을 中心으로 그 周邇를 둘러 보면 다음과 같이 認識된다.

첫째로, 1950년 大韓民國을 侵犯함에 있어 協力하고 團結했던 共產障當에 이미 深刻한 内部的 亀裂이 생겼다는 事實이다. 蘇聯과 中共과의 經濟的 協力關係는 일찍이 破綻했고 그들이 가장 重要視하는 理念面에서 絶對 不相容의 鬭爭이 繼續되고 있으며 兩國의 境界線에서는 東西 各處에서 武力衝突까지 發生하기에 이르러 彼此 百萬을 넘는 兵力을 配置한 對峙狀態에 있는 것이다.

兩共產大國이 最近에 各己 보여준 對美關係改稱의 努力은 그들 兩國間의 矛盾을 더욱 分明히 나타낸 것으로 美國이 그들의 共通의 敵이었던 時代는 이미 過去이며 事實上의 敵對關係는 그들 兩國間에 있다는 것을 認識하게 한다 陸地로 北韓과 隣接하고 있는 兩大國의 이와 같은 關係는 그 自体가 北韓에 對한 支援力의 弱화를 意味할 뿐만아니라 北韓政權의 兩共產大國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의 向背에 따라서는 그 어느 쪽도 北韓을 武力에 依한 實力

利益을 희생할 時期가 아닌 것이다.

세째로, 1960년대 次後 大韓民國政府가 이룩한 國內政治体制의 整備 國防力の 強化 經濟의 成長等은 刮目할 만한 것이며 北韓과의 對比에 있어 50년대 初와는 相互間的 均衡이 전혀 相異한 것이며 韓·美相互防衛條約은 그 內容에 있어 不充分한 點이 있는 것이 事實임에도 不拘하고 其後の 繼續的인 交涉과 合意에 依하여 北韓의 戰爭挑発에 對해서는 거의 充分한 抑制力임이 分明하다.

以上에서 考察한 諸般 情勢는 北韓은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保存하더라도 그 實際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對해서 緊張을 緩和하는 態度轉換을 要求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즉 北韓은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을 一旦 拋棄하고 平和的 競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時代는 共產主義者들의 武器인 戰爭과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武器인 平和나 妥協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對蘇政策의 變遷過程

北韓政權은 1948년 9월 9일 共產衛星群의 한 集團政權으로 樹立되어 同年 10월 8일 北韓外務相 朴憲永은 「소련」수상 「스타린」과 外交關係樹立에 合議하였다. 同年 10월 13일 「스타린」은 北韓을 승인하였다.

이에따라 北韓은 1948년 10월 29일 朱寧河를 「소련」북한대사로 任命하고 蘇聯을 同 12月22日 「스찌코프」를 北韓駐在 大使로 任命하여 兩者間에 正式 外交關係가 樹立되었다. 이어 1958년 12월 16일 領事條約에 依하여 「나린드카」에 北韓領事館이 設置되었다.

1. 蘇軍政期 (1945. 8 ~ 1948. 8)

蘇聯은 1945년 8월 8일 對日宣戰布告를 하고 同 8월 10일 咸北雄基에 上陸함으로써 韓國侵略의 첫발을 들어 놓았다.

北韓駐屯 「소련」제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는 同日附로 “北韓住民의 公私有財産을 蘇聯軍 管轄下에 두고 모든 政黨 團體를 登錄케 하며 모든 武裝부대를 解散하고 「소련」軍司公官協議下에 保安隊를 組織한다”는 聲明書를 發表하여 모든 政治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1945년 11월 5道행정국(過渡行政機構)의 實權者인 조만식등을 反託運動의 理由로 強禁하고 46년 2월 8日에는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을 조직하였다.

하는 決定을 채택하였다.

1958년 5월 15일 鄭一龍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代表團이 蘇聯을 訪問 1959~65年間 商品 相互納入과 經濟協助의 個別的問題들에 對한 議定書를 調印하였으며 同年 5月 20~23日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經濟相互援助理事會參加國 共産党代表者會議>에 全一이 參加하여 社會主義國家와의 經濟協調를 강화하였다.

60년 2월 29일 蘇聯은 無償援助로 제공하는 8,500萬弗에 해당하는 <商品納入에 關한 議定書>에 調印하였으며 同年 10月 13日에는 7億6,000萬 「루블」의 「소련」借款의 償還을 免除하고 1億 4,000萬 「루블」의 借款에 對해 1967년부터 상환키로 한 議定書에 調印하였으며 12月 24日에는 61~67년간 蘇聯의 北韓의 工業・企業所・發電所建設에 技術的 協調提供協定과 61~65年間 商品 相互納入에 關한 協定을 締結했고 이에 의해 北韓에 製鐵所와 火力發電所 및 原油加工工場을 建設하는등 北韓 7개년 經濟계획 수행에 對한 經濟적 技術적 支援을 다짐하였으나 그後 對蘇관계의 惡化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北韓의 7개년計劃은 不得已 70년까지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對蘇關係惡化 (61~64)

中・蘇關係紛爭이 表面化하자 처음 中立을 지키던 北韓이 中공 路線을 追從함으로써 그 結果對蘇關係가 惡化되었다.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軍備撤廢와 平和를 위한 世界大會>에서 北韓代表

對獨戰勝 20 주년 記念式에는 北韓의 代表團이 參席하였으며 同年 5 月 31 日에는 軍事援助協定이 締結되어 軍事援助가 再開되었으며 1966 年 3 월에 開催된 소련 共産黨 23 次大會에는 崔庸健이 參席하여 越南戰에 對한 共産陣營의 統一된 共同行動을 강조하였다.

66 年 6 월에는 이주연을 단장으로 하는 北韓代表團이 소련을 訪問하고 經濟技術協助에 關한 協定을 締結하였으며 동년 6 月 20 日에는 金昌奉이 소련국방상 「마리노프스끼」와 會議하고 軍事援助 問題를 協議하였다.

北韓第一副首相 金一이 소련을 방문하여 軍事및 經濟援助協定을 締結하였고 同年 5 月 小련 副首相 「노프코프」가 北韓을 訪問 하 였다.

68 年 5 月 蘇聯 副首相「노비코프」는 北韓을 訪問하고 兩國間에 貿易抗大를 위한 議定書에 調印하였다.

69 年 5 月 14 日~19 日間 소련 幹部會議議長 「포드고르너」는 北韓訪問 EC-121 型 美정찰기 격추事件에 對한 雙方의 意見을 交換했고 1969 年 6 月에 開催予定인 世界共産黨大會를 둘러싼 中· 蘇間의 主導權爭奪戰에서 小련의 態度를 默認하는 대신 계속적인 軍事및 經濟支援을 保障했던 것이다.

70 年 3 月 4 日에는 1970 年度 相互商品納入에 關한 議定書에 調印하였다. 70 年 8 月 4 日 駐UN蘇聯大使 「말리크」는 北韓을 訪問 하고 UN 에서의 北韓의 支持를 위한 具体案을 討議하였다. 동년 「모스크바」방송은 北韓의 UN 備忘錄 發表에 對하여

(1) 朝鮮問題審議에 北韓의 參加는 当然하며

안되었다 즉 總貿易額의 83%를 重要原料 輸出에 依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貿易關係는 6.25南侵으로 中止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動亂에 의해 입은 被害를 自力으로 復旧하기 不可能하게 되자 蘇聯을 비롯한 中共 및 其他 共產衛星國으로 부터 戰後復旧 3個年計劃에 必要한 援助를 받게 되었다. 60年初 中·蘇紛爭으로 야기된 對中共 편중外交로 말미암아 惡化된 對蘇關係로 貿易面에서도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7개년經濟計劃을 不得已 3년 연장하여 70年度까지 遂行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67년 이래 對蘇貿易規模는 急激한 增大를 이루어 61~66년간의 年平均 1億 7,000萬달러의 停滯狀態에서 67년에는 2億代로 상승하였고 68년에는 前年度에 比해서 23% 69년에는 또 12% 增加하므로써 총 3億 2,500萬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10년간에 比해서 약 2倍으로 증가한 規模에 해당한다.

1970년 현재 北韓의 對蘇輸出構成을 볼 것 같으면 過去의 原料中心에서 漸次半製品중심으로 전환하는 同時에 完製品輸出도 漸高되어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對소 貿易構造는 先進國對 後進國의 무역방식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즉 初期의 原料輸出(鐵礦石, 銑鉄 및 기타 鉍物)이 저하되고 있는데 반해 機械類(工作機械 및 工具類) 建設品 衣類 등 完製品과 金屬 2次加工品 등 半製品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68년부터는 工場 「플란트」 및 技械設備品 도입이 激增되어 北韓入超 現象의 주요 原因이 되고있다 즉 機械 設備品 수입

第4章 北韓의 對東歐關係

1. 北韓의 對 「폴란드」關係

1948년 10월 16일 北韓은 「폴란드」와 對外交 關係를 樹立하고 1950년 8월 18일 「폴란드」 駐在 北韓大使로 최일을 任命하였다. 이어 同年 12월 24일 北韓駐在 「폴란드」公使 「유리우스 브르진」이 赴任함으로써 政式으로 外交關係를 開設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動亂中 비누 700 상자 의약품 53 상자 등 19 종류를 援助하였다.

1953년 7월 27일 6.25 動亂 停戰協定이 調印되자 동년 11월 11일 「폴란드」首都 「바르샤바」에서 北韓의 戰後復旧援助에 對한 協定을 締結하였든바 同協定에 依해 54년~56년 사이에 北韓을 爲해 無償으로 機關車修理工場 客貨車 修理工場新設 및 3個 炭鉞을 改造하기로 했고 1954년 1월 15일에 「베드로 비치 스페 반」을 團長으로 한 技術者 29名을 파견 했으며 同年 12월 7일 에는 運輸部門 技術者들이 到着하였다.

1960년 1월 4일 「폴란드」는 對北韓援助提供에 關한 1955년 1월 14일附 協定에 對해 終結 議定書를 調印하였으며 同4日附 協定에 依하여 北韓은 55~59년間에 3億 6,400萬「 즐로띠」의 無償援助와 西平壤과 元山鐵道工場の 復旧建設 및 2個炭鉞의 機械化 電氣化가 進行되고 淸津市 復旧建設計劃圖의 提供 그리고 「폴란드」에서 北韓技術者를 養成하였다.

昇格시켰다.

「체코」는 韓國動亂時 北韓에게 物質的 支援을 하였다. 1950년 9월 양말 3萬足 붕대 1,500名分등 支援해 준비가 있고 1951년도에는 織物 28車輛 피복 및 醫藥品 67상자 기타 497상자를 援助하였다. 한편 50 - 57년간에는 「체코」醫療團代表團이 派遣되어 防疫事業을 展開하였다.

체戰이 成立되자 53년 9월 4일 「체코」내각은 北韓에 戰後復旧를 위한 援助決定書를 採擇하고 同15일 「체코」民族會議에서 「체코」수상 「쉬로키」는 그의 演說을 通하여 北韓의 戰後復旧를 도우며 兄弟的援助를 지원하는 것을 國際主義的 의무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商務相 李周淵을 團長으로 한 北韓代表團이 「체코」를 訪問하고 1953년 9월 15일 戰後復旧를 위한 經濟및 技術의 無償援助提供協定을 締結하였는데 同協定에서 北韓의 自動車工場 自動車附屬品工場및 工具工場등을 建設해 주기로 約束하였으며 또한 시멘트工場과 長津江虛川江 赴戰江發電所도 復旧해 주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1958년 「체코」는 이에 竣工稼動된 熙川工作機械工場 雲山工具工場의 新設工場과 長津江發電所등에 對하여 經濟的 技術的 支援을 約束한바 있다.

北韓은 「체코」解放五周年記念式에 강일병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代表團을 파견하고 「체코」는 56년 4월 北韓勞動黨 第3次大會에 「와를라브 파셰크」를 團長으로 하는 「체코」共産黨代表團을 參席시킴으로써 相互親善을 強化하였다.

「체코」首相 「리암·쉬로키가」 親善訪問次 北韓에 들러 社會

「루마니아」는 「朝鮮援助委員會」를 組織하여 一個年間に 6,745萬 5,000円(北韓貨), 糧穀 6車輛, 織物 2車輛, 被服 20車輛, 靴類 1車輛, 食料品 270 상자, 医療品 14車輛, 自動車類 1車輛을 支援하였다.

1953년 10월 23일 北韓商務相 李周淵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政府代表團이 一東歐共產國家를 巡訪中 「루마니아」에 登陸 동년 10월 23일 「루마니아」와 北韓은 戰後復旧 經濟技術協定을 締結하고 이에따라 「루마니아」는 53-56年間に 걸쳐 6,500萬 「루블」의 無償援助 提供을 約束하고 紗綫工場 및 「아스피린」工場建設 1백돌製造機械設備支援 客車 10台 漁船(150馬力) 10隻 油槽車 30台를 援助해 주었다.

金日成을 團長으로 한 北韓代表團이 1956년 6월 「소련」 東歐共產國家를 巡訪中에 「루마니아」를 訪問하고 經濟 및 技術援助를 要請하였던바 그 答禮로 「루마니아」大統領 「케오르규·네지」가 北韓을 訪問하였고 1956년 4월 北韓 勞動黨·第3次大會에 「야노수·파게카슈」를 團長으로 한 「루마니아」 勞動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1958년 6월 「루마니아」首相 「키부·스토이카」가 北韓을 訪問하여 12일에 北韓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모든 措置를 적극 支持한다는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1960년 6월 金昌滿이 이끄는 北韓代表團이 「루마니아」 勞動黨·第3次大會에 參席하였고 「루마니아」側에서도 역시 1961년 9월 北韓 勞動黨 第4次大會에 「키부·스토이카」를 團長으로 한 「루마니아」代表團을 보냈었다.

1956년 金日成은 東歐共產諸國을 派訪中 「헝가리」를 訪問하고
同年 4월 北韓勞動黨 第3次大會에 「벨라웨이」를 團長으로한
「헝가리」勞動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1959년 5월 7~14일 「헝가리」首相 「문니흐·페렌츠」를
團長으로 하는 「헝가리」사회勞動黨및 政府代表團이 北韓을 訪問
코 共同聲明을 發表하였으며 同年 11월 「헝가리」勞動黨 第七次
大會에 朴正愛를 團長으로 北韓勞動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1961년 9월 20일~11일 간에 걸쳐 「헝가리」 「쇼모지·미클로쉬」
를 團長으로 한 代表團이 北韓勞動黨 第4次大會에 參加시켰다.

1961년 7월 15 - 12월 3일에 걸쳐 「헝가리」社會勞動黨 第8
次大會에 金翊翬를 團長으로 한 北韓勞動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이러한 親善關係는 1962년 末에 開催된 東歐共產黨大會를 契機로
中·蘇紛爭이 激化하자 北韓은 中共을 「헝가리」는 蘇聯을 支持함
에 따라 雙方關係도 惡化되어 그후 儀禮的 交流만을 계속해오다가
1965년도 부터 雙方間에 高位人事交流가 있으며 親善關係를 改善
하게 되었다. 즉 1965년 9월에는 北韓創建 17週年 記念式에
「헝가리」外相 「야노스·베데르」가 參席하였고 1965년 18~27일
「헝가리」副首相 「포코예에」가 北韓을 親善訪問하여 紐帶를 強化
하였다.

5. 北韓의 對 「불가리아」關係

北韓은 1948年 11月 29日 對「불가리아」와 外交關係를 樹立

1962년 11월 「불가리아」共産党第8次大會에 金鍾恒을 위시한 北韓 代表團이 「불가리아」를 訪問하는등 親善關係를 계속 유지해 왔었으나 1962년말 中·蘇紛爭이 激化하자 雙方關係가 惡化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首相의 北韓訪問으로 北韓 蘇聯關係가 正常化함에 따라 兩國關係도 점차로 改善되어가기 始作했다.

6. 北韓의 對 「알바니아」關係

北韓은 「알바니아」와 1949년 5월 17일付로 公使級 外交 關係가 樹立되고 6.25 動亂以後 朴世昌을 駐「알바니아」 北韓公使로 任命하고 北韓駐在 「알바니아」公使로 「네스터·나세」가 赴任 함으로써 雙方間의 外交關係가 再開되었다. 이어 1955년 5월 4일 公使關係가 大使關係로 昇格하기에 이르렀다. 特히 「알바니아」는 中·蘇紛爭이 激化하자 蘇聯을 支持하던 다른 東歐衛星國家와는 달리 中共을 支持함으로써 계속 北韓과의 親善關係를 유지하였다.

金日成이 五個年經濟計劃 實行을 위한 援助要請次 東歐訪問中 「알바니아」를 訪問하였고 답례로 「알바니아」首相 「메호메르·쇄후」가 北韓을 訪問한바 있다. 北韓黨 第3次大會에 「파나운츠·플리아쿠」를 團長으로 한 「알바니아」勞動黨代表團이 參席하였고 同年 5월 「알바니아」勞動黨 第3次大會에 崔중학이 이끄는 北韓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61년 2월에는 「알바니아」勞動黨 第4次大會

~56年間に「디젤 엔진」工場 電氣器具生産工場 出版印刷工場등을
建設하여 주었고 1954년에는 수천萬「루블」에 核当하는 生活必需品
및 工場設備機材를 援助하여 주었다. 總원조액은 50년 이래 2,55
0萬「마르크」에 達한다.

또한 55년 12월 18일 東獨首相「우토·그로테블」을 團長으로 한
政府代表團이 北韓訪問에 이어 同23일 金料奉을 團長으로 한 北
韓代表團이 東獨大統領 「빌헬름피크」80回 生日祝賀次 東獨을 訪
問하였다. 東獨 社會統一黨 第4次大會에 北韓黨代表團이 參席하였
으며 1956년 4월 北韓黨 第3次大會에 「우토·위체르」를 團長
으로 한 東獨社會 統一黨代表團이 參席하였다.

1958년 7월 東獨社會統一黨 第5次大會에 朴正愛를 團長으로 한
北韓黨代表團이 參席하였고 1961년 北韓黨 第4次大會에는 「알프
레드·쿠넬라」를 團長으로 한 東獨黨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하였다.

東獨社會統一黨 第6次大會에 李孝淳이 이끄는 北韓代表團이
參加하여 연설을 하려고 했으나 拒否당하고 蘇聯代表로 부터 中
共을 支持한다고 심한 非難을 받고 歸國 一時 關係가 惡化되었
으나 「라이프치히」春季國際市場에 權英泰가 參席하는 등 많은 代
表團과 人事交流가 계속되었다.

1967년 4월 12일 北韓勞動黨은 李周淵(內閣副首相)을 團長으
로 한 代表團이 東獨을 訪問하고 社會統一黨 第7次大會에 參席하
였다.

8. 北韓의 對「유고」關係

第5章 北韓의 東歐關係와 北韓의 脆弱點

解放後 北韓에 있어서의 強壓에 依한 共產政權·樹立 南侵·準備 戰爭遂行 休戰協定 戰災復舊 戰後の 再軍備 經濟建設 等等 모든 過程에서 北韓政權이 蘇聯·東歐諸國家에게서 받은 物質的 精神的 支援은 決코 적은것은 아니었다.

事實上 北韓支配層은 누차 支援을 要請하는 大規模의 使節團을 派遣하였던 것이다.

또한 北韓陣營의 前無後無의 暴惡한 獨裁者의 死亡後 蘇聯을 爲 始하여 東歐諸共產國家에서는 여러 部門에 많은 改革과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나 北韓은 如前할 뿐더러 오히려 欠點들은 深化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에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첫째 政治的으로는 그內部에서는 蘇聯 東歐에서 清算過程에 들어간지가 오랜 「스타린」主義的獨裁的 統治體制를 더욱 굳히는 한편 中共 以外的 共產國家들에서는 이미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어가는 個人崇拜를 體制 維持強化의 가장 主要한 方便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政權의 姿勢와 作風도 對外的으로는 平和共存을 부르짖고 資本主義 諸國과의 關係改善에 注力하고 있는 蘇聯 東歐諸共產國家와의 關係에 있어 重大한 弱點이 아닐 수 없다.

둘째 經濟的 問題에 있어서도 狀況은 類似하다. 北韓의 猪突的 官僚主義에 立脚한 武器生産爲主의 共產陣營의 地域協業的 經濟運營을 外面한 所謂 自主經濟建設의 主張과 實踐은 諸共產國家 特히

脆弱성이 있는 것이다.

내재 文化面에 있어서는 狀況은 北韓에게 너무나 不利하다. 生疎한 共產主義思想과 그것에 立脚한 諸般 施策의 無批判의 導入은 長久한 苦難의 歷史에서도 決코 抹殺되지 않고 살아남은 民族文化의 伝統을 송두리째 破壞하고 말았다. 民族의 「엘리트」에 의해 定立된 民族的 學問이나 思想體系는 低俗한 唯物論的 階級史觀에 依해 否定 아니면 變形되었고 民族의 天才들이 남긴 文化遺産은 그 價值를 잃었고 天才들의 創意性은 支配層의 狂信과 無智에 억눌려 自由로운 成長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本意 아니면서 내놓아야 했던 文化藝術의 作品들은 그것을 보는 第三者들의 웃음거리로 마저 되고 말았다.

文化 藝術에 있어서의 形式과 內容을 결코 別個의 것이 될 수 없다. 共通된 內容이 相異한 形式으로 表現된다면 內容의 統一性에 關係 陳腐함을 免치 못한 것이다.

文化와 藝術의 多彩로움은 그 內容 形式共히 民族的이며 特殊 하므로써만이 獨自의인 價值와 生命을 가지는 것이다.

世界的인 範圍에서 理念과 社會體制의 差異를 超越하여 文化藝術의 交流를 꾀하고 있는 現今 民族的 內容이 扞拭되고 너무나 낮익은 內容의 北韓産 文化 藝術 作品은 形式의 新奇로움으로 一時的으로 蘇聯, 東歐人의 興味는 끌지 모르나 決코 長久한 時日 계속적 關心은 끌지는 못할 것이며 靈魂의 共感을 얻을수는 없을 것이다.

文化面에 있어서 北韓의 脆弱性은 바로 이러한 點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一般的인 측세는 個別的 國家關係에 剛기 作用하는 것임에는 틀림없겠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公式的으로 모든 境況에 適用될 수는 없는 것이다.

大韓民國과 蘇聯 東歐와의 關係에서는 特히 그러하다 앞에서 言及한 相互疎外의 主觀的 客觀的 諸要因은 尚存한다. 그러나 그것이 侵略戰爭 再開의 野慾을 陰蔽하려는 煙幕戰術이건 아니건 北韓이 美國을 爲始해 自由陣營의 先進國家들과의 接觸을 피하고 있는 事實과 더우기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는 疎外의 主要한 客觀的 要因 解消의 조짐으로 보여 鼓舞的이다. 그러한 方向은 進行的 過程에서 이루어지는 接觸의 密度가 濃厚 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對蘇 東歐關係에 있어서의 主觀的 客觀的 疎外要因들은 解消할 것이다. 勿論 많은 時間과 우리의 忍耐力과 各方向의 빈틈없는 갖춤을 要求하는 事實이다. 細密한 打算과 操心性있는 그러나 果敢한 行動으로 우리는 하루바삐 蘇聯 東歐와 直接的인 多方面의 接觸은 가져야 한다.

接觸만 開始되면 北韓의 그들과의 既存 關係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相對的으로 北韓보다 優位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事前에 萬般의 準備가 되어 있으리라는 條件付로 그리고 筆者는 大韓民國이 그條件을 充足시킬수 있는 潜在力을 갖춰가고 있다는 見地에 서는 것이다.

英仏도 中共, 日本의 強大國化에 자극을 입고 國際事情에 영향력을 行使하는 등 또하나의 勢力國으로 登場하였다.

이처럼 5極化된 國際社會에서 美·蘇가 和親하고 美·中共이 和親하며 中·蘇가 紛爭을 계속하고 西歐와 日本의 계속 지금과 같은 親共的이기 보다는 親西方的인 路線을 걷는다면 國際社會는 지금까지 위에서 누누히 說明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움직일 것이다.

한편 美·蘇가 和親體制를 깨뜨리고 다시 兇惡한 敵對行爲를 하여 世界平和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條件을 設定해본 이것은 거의 不可能한 事實으로 판단된다. 戰後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世界가 美·蘇를 兩極으로 하는 東西障營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美·蘇間에 상당히 自由로운 行動決定이 可能했지만 現在와 같은 多極體制의 國際情勢에서는 그것이 무척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美·蘇의 武力對決의 위험은 特히 極을 形成하고 있는 나라들 까지도 위험속에 밀어 넣은 結果가 되어 이 나라들은 各己 美·蘇에 압력을 넣어 現在의 和親策을 繼續 維持하도록 要求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現在의 國際情勢가 한동안 繼續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韓國의 安保를 위한 對蘇戰略의 摸索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國際關係를 支配하는 主要要因들에 依해 分析해 봄이 좋을 것이다.

密着된 印度를 通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으며 蘇聯의 미움을 사고 있지만 그런대로 蘇聯이 困難하고 까다로운 國際問題의 중계자로 생각했던 「루마니아」의 초우「세스쿠」같은 人物을 통해서 努力해 보는것도 가능한 方法일 것이다.

한편 地政學的으로 北韓도 韓國의 立場과 비슷하여 蘇聯과 友好關係를 強化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共產國家들 이기 때문에 더욱 緊密한 協助體制를 굳히고 韓國의 對蘇接近 努力을 積極妨害해온 事實은 韓國의 對蘇政策遂行에 있어 커다란 問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하나의 戰術的인 問題이고 大政治家가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할때 반드시 解決이 不可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有能한 政治家가 事實的이고 具體的인 方法을 가지고 꾸준히 努力해야 한다는 條件은 勿論 뒤따르고 있다.

2. 軍事力과 經濟開發의 原則

한 국가가 強力한 經濟를 갖게 되면 그것을 防어하기 위한 강력한 軍대가 있어야 하고 그 강력한 軍隊를 維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強力한 經濟的 뒤바침이 있어야 한다. 即 經濟와 軍事는 相互依存의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原則을 韓國의 경우에 適用시킨다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韓國이 北韓에 對해서 充分한 安保能力을 保有하는 일이다. 歷史上 한 나라가 힘을 결렬하고 있을때는 外勢의 농락을 받기가 일수이고 희생물이 되기가 쉽다. 아무리 現今 國際的으로 和解무드가 支配한다고 해도

것이다. 여기에 강조할 것은 相互共同利益이다. 一方에만 有益한 일은 他方에서 적극 協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相互間에 共同利益이 되는 方案을 摸索해야 된다.

예를 들면 北韓과 共同利益을 追求할 수 있다는 事實은 이번 7·4 공동성명으로 立証된 셈이다.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어느 一方에만 有益한 것이 아니라 雙方에 다 有益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中共·日本·蘇聯과도 共同利益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政治에 있어서 共同利益에 土臺를 둔 合意만이 준수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合議는 단기적으로는 一方에게 有益한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곧 파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얘기는 곧 단기적인 目的도 중요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問題를 接近해 가야 함을 意味한다.

4. 平等·互惠의 原則

國際關係는 主權과 平等·특히 互惠의 原則을 준수 할때 원만하게 유지된다.

國際社會에서는 경찰이 없고 또 강제력이 있는 司法機關이 없기 때문에 恒常1대1의 關係이다. 一方에서 나쁘게 하면 他方에서 報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最近 英國과 蘇聯이 相互外交官을 追放한 事實이다.

작은나라도 互惠의 原則에 따라 行動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困難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때 韓國도 獨自的으로 1對1의 立場에서 政策을 遂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접국가간의 相互共同利益을 증진할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는 원칙이 어느정도 적용되고 있다.

勿論 北韓을 隣接國家로 보는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완화하고 戰爭可能性을 억제하는 것은 南北 雙方에 모두 有益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北韓은 아직도 가능하면 武力으로 赤化統一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이런 對話와 接觸을 하면서 힘의 姿勢에 조금도 이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軍事的인 均衡의 維持가 꼭 必要한 것이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전쟁과 갈등은 自然的인 상태이다. 그래서 相互共同利益을 爲해서 協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第 2 節 北韓孤立化를 위한 接近方案

蘇聯과 北韓 金日成 集團간의 同盟關係가 存續되고 東歐圈과 北韓間的 相互紐帶關係가 繼續되고 있는 限 이들 共產國家에 對한 接近方案을 摸索하기란 現時點에서 볼때 決코 容易한 問題일수 없다. 더우기 大韓民國과 이들 共產國家間에는 根本적으로 「이데올로기」的 社會體制의 差異가 있는데다가 南北韓分斷 27年間 金日成에 依한 이들 共產國家에 對한 歪曲된 韓國의 宣傳이 너무나도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美國政府는 1980 年代의 蘇聯政權의 對韓關係 展望을 어디까지나 北韓과의 關係를 基礎로 判斷하고 있는 點等이 이러한 難點을 부채질 하고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어디까지나 對共產圈 接

의 反應이 好意的이라는 點을 미루어 볼때 이런 緊張緩和的이고 平和志向的인 姿勢와 더불어 時代逆行的인 反共國家의 硬直스러운 印象을 하루 속히 払拭하는데 注力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韓半島 緊張緩和에 對한 積極的인 姿勢와 併行하여 이들 國家들이 지니고 있는 歪曲된 韓國觀 払拭에도 可能한 限의 모든 方法을 다해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가) 對蘇放送의 強化이다. 卽 平和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敵對的인 內容은 止揚하고 大韓民國의 平和志向的 性格과 傳統的인 文化關係의 「루트」를 新設하거나 改編하는 일 등이 과감하게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希臘正敎의 土壤에서 發生된 우리같은 蘇聯人의 信仰心을 자극하기 위하여 一切의 政治性을 排除한 純粹한 宣敎的인 放送을 實施하는 일 등은 考察할 만한 일이다.

(다) 그리고 露語로 된 對蘇弘報物等을 發刊하여 直接 乃至 間接 的方法으로 郵送하여 蘇聯의 對韓 「이미지」의 變化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蘇聯 東歐에 對한 對話開設問題

이들 國家에 對한 接近摸索에 있어서 우선 斷絶된 狀況에서 對話의 「채널」을 第三者에 依한 非公式 秘密 「루트」에 依하여 開拓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韓半島를 위한 國際關係의 可變性을 適切히 活用하는 方法도 考慮할 수 있다고 보겠다.

「레벨」의 接近方法도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亂立되어 있는 民間團體를 規整하여 一元화된 民間外交機構等 設置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對外文化協會 等 民間外交專任機構를 設置하여 海外의 僑胞居住地域에서 이를 代行할 수 있는 僑胞團體를 組織하여 政府의 間接的인 支援下에 接觸의 主導權을 掌握하도록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民間外交는 展開해야 할 것이다.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政治性的인 體制下에 經濟 社會 文化 等 機能的인 面에서의 接近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그의 具體的인 方法으로 다음의 試案들을 考慮할 수 있겠다.

(가) 蘇聯의 韓國語文學 研究에 對한 資料支援을 提起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서울大學이 蘇聯의 東洋學 研究의 本産인 「모스크바」大學이나 「레닌그라드」大學에 提議하는 形式 等を 考慮해 볼 수 있다. 蘇聯은 이에 三國史記를 包括的인 概念과 註解를 붙여서 露譯한 것으로 이를 비롯한 九雲夢 雙釵奇逢 春香伝 中世韓國說話集等 韓國古典을 露譯發刊한 일이 있으며 韓國研究는 露語를 통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날이 곧 올 것이라고 韓國을 除外한 地域에서 호언장단을 하고 있다.

(나) 또한 國立博物館에 備置된 國寶級文化遺産의 紹介冊子를 蘇聯內의 關係究機關에 配布하거나 純粹 古典의 共同研究도 提起할 만한 일이라 보겠다.

(다) 그밖에 板門店 訪問의 蘇聯記者들의 韓國招請을 赤十字社를 通하여 題起하는 일도 考慮될 수 있다.